

비즈니스 인사이트 (Business Insight)

국가 경제의 40%, 수출의 80%, 세입의 50%*

몰디브 관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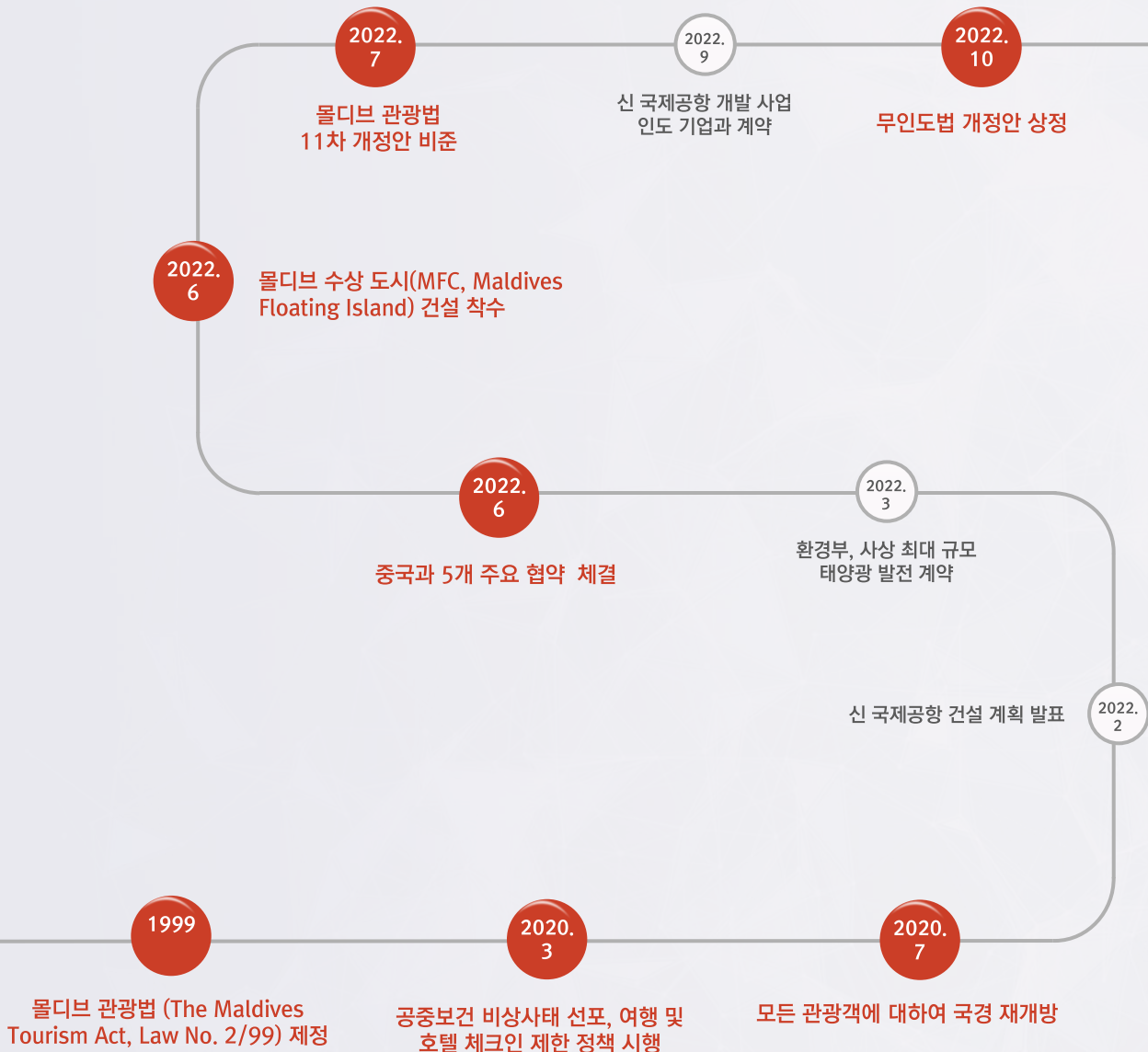
몰디브



관광업

2014~2022.11 몰디브 관광업 주요 이슈

● 몰디브 관광업 관련 주요 법안 및 정책

* 자료: <https://blogs.worldbank.org/endpovertyinsouthasia/beyond-tourism-evolving-narrative-maldives-growth>

세계 최고 수준* 국가 경제 기여도, 몰디브 관광업 현황

높은 의존도 불가피... 몰디브 관광업 현황

몰디브는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다. 1976년 3월 29일 영국군이 모두 철수하면서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됐다. 몰디브 국토는 사슬처럼 연결된 1,200개의 작은 산호섬과 모래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200개의 섬에만 주민이 거주한다. 몰디브 군도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820km,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130km 길이로 이어진다. 북쪽 끝에 있는 환초섬(atoll)은 인도 남서부 해안에서 600km가량 떨어져 있다. 몰디브는 국토의 80%가 해발고도 1m 미만인 국가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매년 5~8월과 12~3월에 우기에 돌입하는데 제방을 넘어 들어온 파도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도가 있는 말레(Male) 섬은 몰디브 군도 중앙부에 있고 인접국인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에서 645km 떨어져 있다. 국토의 육지 면적은 298km²이고 해안선은 644km다. 몰디브는 1996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가입하여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을 설정했다. 따라서, 몰디브 군도를 이루는 넓은 수역에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보다 더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이 선포되어 있다.

2022년 기준 몰디브의 인구는 39만 명이다. 섬나라인 몰디브에서 어업이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었지만, 1972년부터 관광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몰디브는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이코노미(The Global Economy)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몰디브에서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5%로 카리브해의 네덜란드 식민지 아루바(Aruba)에 이어 세계 2위다. 주권 국가만 놓고 따지면 몰디브가 세계에서 관광 산업 의존도가 가장 큰 셈이다.

2020년 몰디브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관광 수입 56% 감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몰디브의 관광 산업도 직격타를 입었다. 2019년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0만 명이었고 3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조 3,183억 원)의 관광수입이 창출되었는데,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55만 5,000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2020년도 관광수입도 14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204억 원)에 그쳤다.

*자료: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international_tourism_revenue_to_GDP/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빠른 회복, 2023년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

몰디브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 몰디브 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2일 기준 몰디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5만 명을 돌파했다. 1일 평균 입국 관광객 수는 4,428명, 1인당 평균 체류일수는 8.1일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인도인 관광객 수가 19만 1,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인 16만 6,250명, 영국인 14만 7,535명, 독일인 11만 823명 순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하여 몰디브의 10대(大) 인바운드 관광시장이었던 우크라이나 관광객 수가 순위표에서 밀려날 정도로 급감했다. 압둘라 마우숨(Abdulla Mausoom) 몰디브 관광부 장관은 2023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압둘라 마우숨 장관은 2022년에는 관광객 16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일수(bed nights)는 1,300만 일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몰디브 관광산업 유지의 핵심…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에의 대응

‘지구 온난화 통제 실패는 몰디브 국민과 문화에 대한 사형선고’, 세계 각국에 호소

2021년 10월 아미나트 샤우나(Aminath Shauna) 몰디브 환경부 장관은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 국민과 문화는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라고 발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기온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미나트 샤우나 장관은 “1.5℃와 2℃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몰디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동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 대응에 많은 비용 투입…국가경제에 큰 부담

2004년 인도양 국가들을 덮친 쓰나미는 몰디브 국민의 생존을 위협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쓰나미가 덮쳐 왔고 수도 말레를 포함하여 몰디브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 당시 피해 규모는 5억 달러(한화 약 6,794억 원)로 몰디브 GDP의 절반 가량이었다. 쓰나미 이후 2007년 몰디브 정부는 헌법을 개정했고, 사상 처음으로 민주 선거로 출범한 모하메드 나시드(Mohammed Nasheed) 정권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긴급한

기후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촉구하고 나섰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수중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퍼포먼스로 섬나라 국가들의 수몰 위기에 대한 주의를 전세계에 환기시킨 바 있다. 한편 몰디브 정부는 국가 예산의 30~50%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할당하고 있다. 2021년 몰디브는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의 26%를 줄이고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처가 국가 최우선 과제를 천명했다.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몰디브의 전략

해수면 상승의 위협, 그러나 국가 경제를 위해 멈출 수 없는 해안 개발

해변 침식(beach erosion)은 몰디브가 직면한 주된 환경 위협이다. 몰디브 섬들의 해변 모래는 몬순 때마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바람과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자연적인 모래 교환 체제를 통해 양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몰디브 정부는 수도 말레의 인구 과밀 해소와 관광 개발을 위하여 해변에 다수의 호텔, 리조트, 항만 시설,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쌓았다. 그 결과 자연적인 모래 교환이 멈추고 한번 파도에 쓸려 나간 백사장 모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유실된 상태로 남는 해변 침식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

2022년 3월 25~28일 이브라힘 솔리흐(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은 해변 침식 가속화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억 4,7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짜리 앳두 환초섬(Addu atoll) 간척 사업을 승인했다. 2021년 7월 사우나 아미나트 몰디브 환경부 장관과 시파즈 알리(Shifaz Ali) 기획부 장관은 “앳두 환초섬 간척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으나, 2022년 3월 의회에 출두해서는 “앳두 환초섬 개발을 방해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앳두는 몰디브 군도 남쪽 끝에 있는 환초섬인데 고리 모양을 한 6개의 가느다란 육지가 석호(lagoon)를 둘러싼 모양을 한다. 인구는 약 2만 명이다.

인공섬 건설,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미래를 준비하는 몰디브

몰디브 정부는 수도 말레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주민 2만 명이 거주할 수상 도시(floating city)를 건설하고 있다. 뇌산호(brain coral)와 비슷한 모양을 한 수상 도시는 부유 플랫폼(floating units) 5,000여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플랫폼에는 주택, 레스토랑, 상점, 학교 등이 설치된다. 수상 도시의 첫 플랫폼들은 2022년 6월에 모습을 갖췄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초엽으로 예정됐다. 수상 도시 전체는 2027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이번 수상 도시 개발은 네덜란드 부동산 개발사 더치 도클란드(Dutch Docklands)와 몰디브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

2022년 3월 몰디브 환경부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위탁계약을 말레이시아의 메가 퍼스트 발전(Mega First Power Industries Sdn. Bhd.), 중국의 파워차이나(Powerchina Huadong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와 체결했다. 몰디브 6개 섬에 1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완공 시 앳두 시티는 3MW, 푸바물라 시티(Fuvahmulah City)는 2MW의 태양광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2020년 기준 몰디브 전력 생산량 중에서 99.6%는 화력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정책과 산업 현황

몰디브 관광업

몰디브 관광법 (11차 개정)

비준: 2022년 7월 3일,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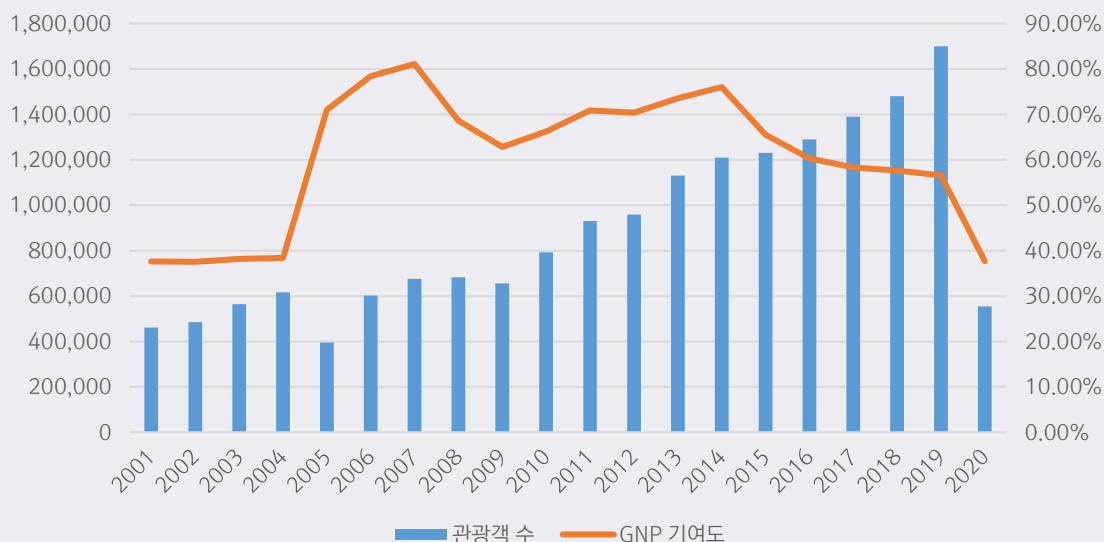
몰디브 관광법(The Maldives Tourism Act, Law No. 2/99)

- 1999년 제정
- 총 11회 개정(2004년,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2015년, 2016년, 2018년, 2021년, 2022년)

11차 개정안 주요 내용

- 섬 지역 자치위원회(island council)에 가장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토지 임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섬 지역 자치위원회의 관할구역 내 토지 권리 이전 권한 확대
- 합작 투자로 임대한 관광 시설의 환매나 지분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해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지분의 시장가격을 규정하는 조항 포함
- 50침상 이상 게스트하우스에 하루 3달러(한화 약 4,260원)의 환경세 부과
- 게스트하우스, 호텔 및 다이빙 센터에 대한 등록비 부과 중단(기존: 관광호텔 등록세 650달러(한화 약 92만 3,000원), 다이빙센터 등록세 300달러(한화 약 42만 5,000원))
- 개정안 발효 12개월 이내에 관광호텔, 게스트하우스, 요트마리나 등의 운영 허가를 갱신해야 함.

2001~2020 몰디브 관광업 현황 (단위 - 좌: 명, 우: %)



자료: <https://www.worlddata.info/asia/maldives/tourism.php>

2025년까지 국제 리조트 체인 12개 이상 몰디브에 신규 리조트 건설 투자 예정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이면 몰디브 유명 관광지의 80%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휴양지인 몰디브에는 국제 리조트 체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파티나(Patina), 리츠 칼튼(Ritz-Carlton), 날라두 프라이빗 아일랜드(Naladhu Private Island), 노바 몰디브(Nova Maldives), 조알리 비잉(Joali Being)이 신규 사업자로 합류했다.

알릴라 코타이파루(Alila Kothaifaru)는 라아 환초섬(Raa Atoll)에 싱가포르의 건축사 스튜디오고토(Studiogoto)가 설계한 해변 빌라 8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이너 호텔 그룹(Minor Hotels Group)의 아바니 플러스(Avani+)는 2023년에 바아 환초섬(Baa Atoll)의 파레스 섬(Fares Island)에 객실 200개와 발리를 갖춘 리조트를 오픈하게 된다.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Mandarin Oriental)도 사우스 말레 환초섬(South Malé Atoll)에 있는 볼리두 파루 리프(Bolidhuffaru Reef)에 민간 소유 섬 3개에 걸친 리조트를 개발하고 2025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리조트는 독립형 빌라 120채, 수상 빌라 56채, 해변 빌라 64채, 그리고 만다린 오리엔탈의 브랜드 레지던스 10채로 구성된다. 이렇게 2025년까지 국제 리조트 체인 12개 이상이 몰디브에 새로 들어서게 된다.





도이치뱅크 해양회복자선기금

독일 시중은행인 도이치뱅크(Deutsche Bank)는 해양회복자선기금(Ocean Resilience Philanthropy Fund)을 마련하고 산호초, 맹그로브 숲, 해안 습지 등 생태계 보호·보존·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몰디브 산호초연구소(Maldives Coral Institute)와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와의 온전한 참여를 끌어내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연 자산을 재충전을 꾀하는 것이 도이치뱅크의 해양회복자선기금의 목적이다. 몰디브 산호초 연구소는 몰디브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가 설립한 단체이다.



월드뱅크 몰디브청정환경프로젝트 청년고용과 회복력 향상 프로젝트

몰디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양 생태계는 물론 몰디브 경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하루 860톤이나 되는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몰디브 정부는 ‘사용 후 폐기 (use and dispose)’라는 낡은 단선적인 폐기물 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꾼다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사고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국가 전략행동계획(SAP, Strategic Action Plan)을 통해 몰디브 청정환경프로젝트(MCEP, Maldives Clean Environment Project), 몰디브 청년 고용과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MEERY, Maldives Enhancing Employability and Resilience of Youth)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몰디브를 위한 초석을 닦기 위해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돕고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속가능한 해양 및 연안 발전 프로그램인 프로블루(PROBLUE)를 통해 몰디브 정부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UNDP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 계획

2022년 10월 13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몰디브 사무소는 국제재난위기감소의 날(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을 기념하고 다면성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과 재난위기정보 접근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몰디브 국민이 거주하는 가옥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임박한 재난 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적시에 알려 주민들에게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몰디브 기상청(Maldives Meteorological Service)은 호우, 홍수, 거친 파도, 강풍 발생 시 정기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한편, 산호초와 맹그로브를 복원하면 이들이 자연적 방파제가 되어 상습적인 해안침수를 막을 수 있다. 이에 UNDP와 몰디브 국가재난관리청(NDM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몰디브 적성월사(MRC, Maldivian Red Crescent) 등이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을 위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해당 사업은 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지속가능개발기금(Joint SDG Fund)의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The Edition, Maldives tourist arrival in 2022 exceed 2021 annual total, 2022.11.05.
- UNDP, Stronger disaster and climate change information to enhance early warning in the Maldives, 2022.10.13.
- Avas, 2023: Maldives sets target for 2 mln tourists, 2022.09.29.
- Forbes, Maldives Construction Boom: Despite Climate Fears, Many New Resorts Expected To Open By 2025, 2022.08.31.
- World Bank, Maldives Is Turning Waste to Wealth, Energizing Youth, to Safeguard its Future, 2022.07.27.
- CNN, A floating city in the Maldives begins to take shape, 2022.06.22.
- Avas, Environment Ministry signs largest solar PV contract in Maldivian history, 2022.03.29.
- Climat Home News, Maldives greenlights destructive dredging to build housing and luxury resorts, 2022.03.25.
- The Diplomat, Seeking Higher Ground: Climate Resilience in the Maldives, 2022.02.16.
- Manchester1824, The Maldives is threatened by rising seas – but coastal development is causing even more pressing environmental issues, 2021.11.23.
- AP, Maldives minister: Failure to limit warming a death sentence, 2021.10.21.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maldives/>
- Maldives,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place/Maldives>
-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tourism revenue, percent of GDP – Country rankings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international_tourism_revenue_to_GDP/
- World Data, Development of the tourism sector on the Maldives from 1995 to 2020 <https://www.worlddata.info/asia/maldives/tourism.php>
- The Deutsche Bank Ocean Resilience Philanthropy Fund <https://deutschewealth.com/en/insights/sustainability/blue-economy/about-ocean-resilience-fund.html>
- Maldives Coral Institute <https://www.maldivescoral.org/our-team>
- Maldives tourist arrival in 2022 exceed 2021 annual total 2022.11.05 https://edition.mv/maldives_correctional_service/26218